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I)

문항 1

- (1) 위 ㉠과 ㉡의 소비에 대해 제시문 [나]의 ‘지불 용의 가격’ 측면에서 논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와 제시문 [나]의 코끼리 구매 행위를 평가하시오. [20점]

문항 1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명품과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소비를 지불 용의 가격 측면에서 논할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응시자의 독해력과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판적 논의에 근거한 합리주의적 태도라는 기준을 통해 상이한 사례들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응시자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항 1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22	30-32	제시문 [가]	○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2	143-148	제시문 [나]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9	40	제시문 [다]	○

문항 1 -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좋은 책 신사고에서 발간한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글로써 성영신이 저술한 「지식의 지평 17호」에 수록된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사람들의 명품 소비 심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지위 상승 욕구가 높은 이들이 명품 구매를 통해 과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계주의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 유행과 같은 동조 행위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비판적 어조로 서술하였다.

제시문 [나]는 비상교육에서 출판한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글이며 박정호가 쓴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2」에 실린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에서 발췌하

였다. 저자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소설의 주인공인 포그의 대체 교통수단 구매 사례를 통해 지불 용의 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미래엔의 「생활과 윤리」에 수록된 글로써 칼 포퍼가 저술한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글의 저자인 포퍼는 합리주의적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합리주의적 태도라 함은 다른 이들과의 ‘주고 받기’를 통해 비판적 논의를 수행함으로써 실수와 오류를 줄이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문항 1-(1)

이 문항은 응시자들로 하여금 제시문 [나]에 제시된 ‘지불 용의 가격’ 측면에서 제시문 [가]의 ‘명품’ 소비, 제시문 [나]의 포그의 ‘대체 교통수단’ 소비를 논하게 하였다. 특정 상황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명품과 대체 교통수단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를 보인다. 하지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내용에 입각할 때 명품과 대체 교통수단의 지불 용의 가격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르다. 문항 1-(1)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논하게 함으로써 응시자들이 충분한 논리력과 응용력을 갖고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에서는 높은 지위 상승 욕구를 갖고있는 이들이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 명품을 소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포그는 내기에 승리하여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 소비에 시장가보다 높은 돈을 지불하였다.

■ 문항 1-(2)

이 문항은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와 제시문 [나]의 코끼리 구매 행위가 제시문 [다]의 합리주의적 태도라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응시자들이 특정 평가 기준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평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제시문 [다]의 합리주의적 태도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되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오류와 실수를 줄이려는 태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할 때,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외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판적 논의가 부재하다. 그러므로 이는 합리주의적 태도라 말하기 힘들다. 반면 제시문 [나]의 포그는 동행하는 영국 육군 준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숙고한 뒤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결론 하에 코끼리 구매를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항 1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제시문 [가]의 ‘명품’ 소비를 ‘지불 용의 가격’ 측면에서 적절하게 논의 -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명품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을 높이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므로 물질 자기와 사회적 자기를 높여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명품을 소비하려 할 것이다.	7점
	제시문 [나]의 ‘대체 교통수단’ 소비를 ‘지불 용의 가격’ 측면에서 적절하게 논의	7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기에서 승리할 때 2만 파운드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포그는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의 대체 교통수단 소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를 가졌다. - 그렇기 때문에 포그는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투자 차원에서 대체 교통수단을 소비하였다.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6점
1-(2)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를 합리주의적 태도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평가 - 동조 행위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부재하다. - 동조 행위는 무비판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합리주의적 태도라 말하기 힘들다.	7점
	제시문 [나]의 코끼리 구매 행위를 합리주의적 태도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평가 - 포그는 영국 육군 준장의 의견을 숙고한 뒤,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였다. -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에 비해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합리주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7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6점

문항 1 - 예시 답안

■ 문항 1-(1)

제시문 [가]의 명품과 제시문 [나]의 대체 교통수단은 모두 상황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이 아주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상정한 상품이다. 제시문 [가]의 명품 구매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이유는 이들이 명품을 외부에 과시함으로써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물질 자기와 사회적 자기를 높여 자아 존중감을 높이려고 하는 이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명품을 소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포그의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내기 상금을 고려할 때 대체 교통수단의 경제적 투자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대체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강했기 때문에 포그는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대체 교통수단을 소비하였다.

■ 문항 1-(2)

제시문 [다]의 저자는 비판적 논의를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주의적 태도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논의는 나와 타인 간의 ‘주고 받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는 합리주의적 태도라 할 수 없다.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는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찾으며, 무비판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한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포그는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의 조언을 경청하여 숙고한 뒤 내기에서의 승리를 위해 과감하게 코끼리를 구입하기로 결정한다. 물론 포그는 시장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코끼리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이는 제시문 [다]의 저자가 언급한 비판적 논의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다]의 저자는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에 비해 제시문 [나]에 나타난 포그의 코끼리 구매를 상대적으로 합리주의적 태도에 가깝다고 평가할 것이다.



문항 2

제시문 [라]에 제공된 생태학적 오류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림 a]와 [그림 b]가 보여 주는 변수 간의 관계를 각각 설명하시오. 또한 제시문 [마]의 두 그림 중 연구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30점]

문항 2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수집한 자료의 통계분석을 실시할 때, 자료의 어떤 수준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구자의 질문 수준이 개인에게 있다면 개인 수준에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응시자는 동일한 자료도 집단 수준에서 분석을 하느냐 또는 개인 수준에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줄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집단 수준에서의 자료 분석과 개인 수준에서의 자료 분석이 각각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응시자의 자료와 통계를 바라보는 이해력, 분석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2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print&artid=201512011435041)	김재연	주간경향	2015.12.08.	1154호	제시문 [라]	○
사회학사전	고영복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0	210-211	제시문 [마]	○

문항 2 - 문항 해설

제시문 [라]의 첫 번째 문단은 2000년 미국의 대선 결과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으로 풍요한 주들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들은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였다는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학자들의 경고를 담고 있다. 즉, 주(state)의 평균적인 부의 정도와 평균적인 투표 성향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를 개인의 부의 정도와 투표 성향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먼저 생태학적 오류란 개인 수준의 관계를 해석할 때 집단 수준에서 도출된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통계적 오류라는 개념적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태학적 오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상의 산포도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동일한 60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교육수준 및 소득의 관계를 [그림 a]에서는 집단 수준(집단 평균을 이용하여)에서 나타냈으며, [그림 b]에서는 각 집단 내의 개인 수준에서 나타내고 있다. 집단 수준에서 자료를 분석한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과 개인 수준에서 자료를 분석한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이 심지어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예를 담고 있다. 이 그림들을 통해 연구자의 목적이 개인 수준에서의 변수 간 관계라면, 집단 수준에서 자료를 분석해서는 안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였다.

이 문항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첫 번째 부분은 제시문 [라]를 통해 생태학적 오류가 현실의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의 예시를 참고하여, 제시문 [마]에 제공된 그림들 속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응시자가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라]의 예시에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개인의 소득과 투표 성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인데, 실제로는 주의 평균 소득과 투표 성향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앤드루 겔만을 포함한 여러 학자는 이것이 집단 수준의 자료 분석 결과를 개인 수준에 적용하는 문제인 생태학적 오류의 예임을 지적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제시문 [마]에 제공된 교육수준과 소득의 관계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문항의 첫 번째 목표이다. 그림 a는 각 직업 집단의 평균 교육수준과 평균 소득이 가지고 있는 부적 관계(음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b는 각 집단 내에서 개인의 교육수준과 개인의 소득이 가지고 있는 정적 관계(양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문항의 두 번째 부분은 연구자의 질문이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둘 중에 어떤 그림을 이용하여 결과 해석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만약 부적절한 그림을 택한다면 어떤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 사이에 관심이 있다면 개인의 수준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림 b를 선택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만약 그림 a를 선택하여 집단 평균들로 이루어진 변수 간 관계를 이용한다면 실제 개인 수준에서의 관계(정적 관계)와는 반대(부적 관계)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항 2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라]의 생태학적 오류의 예제를 간략하게 정리 -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과 투표성향의 관계 - 그림에도 불구하고 주(state)의 평균소득과 투표성향의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수준의 소득과 투표성향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함	5점
	제시문 [마]에 제공된 그림 a와 b가 어떤 수준에서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지 각각 설명 - 그림 a는 자료 전체를 이용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집단 수준의 평균점들을 이용하여 파악하는 두 변수의 관계와 동일함 - 그림 b는 전체 자료를 각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각 집단 내에서 개인의 소득수준과 소득 간 관계를 보여 주고 있음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연구자가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그림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유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a는 집단 수준에서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그림 b를 선택하여 해석해야 함 -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을 집단으로 묶어 집단 수준에서 특정한 관계를 찾아낸다면, 전혀 예측치 못한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음 	10점
	<p>형식의 완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문항 2 - 예시 답안

제시문 [라]에 제시된 생태학적 오류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서 개인의 소득수준과 정치 성향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나, 주(state)의 소득 평균과 정당지지도를 이용한 오류이다.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분석의 기준이 개인이라면, 개인의 경제적 조건과 투표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 주의 경제적 조건과 주의 투표 패턴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a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패턴이 있다. 이는 각 집단의 평균점을 이용하여 그은 선의 방향과 일치한다. 즉, 각 직업군의 교육수준 평균과 소득 평균을 이용하여 교육수준과 소득의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그림 b는 각 직업 집단별로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각 집단 내에서 직장인들은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며, 이는 집단의 평균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패턴과 다르다.

개인적 관계란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해서 보는 개인들의 두 속성(또는 변수) 간의 관계를 말한다. 만일 이러한 개인들이 집단으로 묶이고, 집단 수준에서 특정한 관계를 찾아낸다면, 그 결과는 단위로서 집단을 사용한 생태학적(집단적) 관계이다. 개인 수준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의 두 그림 중 b를 선택해서 해석해야 한다. 생태학적(집단적) 관계는 개인적 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은 그림 a와 b처럼 정반대의 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항 3

- (1) A국과 B국에서 국민들이 소비하는 상품은 쌀과 소고기뿐이고, A국과 B국 간에는 무역 및 노동 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상품 가격 및 상품별 지출 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다. 두 국가의 화폐 단위는 각각 α 와 β 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두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구하시오. [12점]

A국과 B국의 상품 가격 및 상품별 지출 비중

A국	쌀	소고기	B국	쌀	소고기
2020년 가격	100α	$1,000\alpha$	2020년 가격	100β	$1,000\beta$
2021년 가격	102α	$1,030\alpha$	2021년 가격	130β	$1,200\beta$
2020년 지출 비중(단위: %)	60%	40%	2020년 지출 비중(단위: %)	40%	60%

- (2) 두 국가의 2021년 물가상승률을 구하고, 두 국가의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비교하시오. [8점]
- (3) A국의 2022년 물가상승률이 앞서 구한 2021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될 확률은 0.5이고, 2.6%가 될 확률은 0.5이다. 반면 B국의 경우, 2022년의 물가상승률이 앞서 구한 2021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될 확률은 0.5이고, 25%가 될 확률은 0.5이다. A국의 1년 만기 명목 이자율 5% 예금과 B국의 1년 만기 명목 이자율 26% 예금 중에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A국과 B국 간의 환율은 일정하고, 예금과 관련된 다른 추가 비용 및 예금 이외의 다른 투자 방식은 없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 이외에 다른 불확실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10점]

문항 3 - 출제 의도

- 3-(1). 지문에서 주어진 소비자물가지수 정의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문항이다.
- 3-(2). 지문에서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과 구매력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 3-(3).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문항 3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1	112-113, 186	문항 3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22	123, 125, 198	문항 3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22	118-119, 178-179	문항 3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21	109-114, 190	문항 3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통계청	2023. 07.04	18	문항 3	○

문항 3 - 문항 해설

■ 문항 3-(1)

밀가루 시장의 균형인 수요와 공급의 일치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찾는 문항이다. 소비하는 상품이 소고기만 이는 경우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하는 문항이다.

■ 문항 3-(2)

각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구하고, 이를 두 국가의 구매력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문항이다.

■ 문항 3-(3)

두 국가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실질이자율을 산출한 후 더 이득이 되는 투자 선택을 하는 문항이다.

문항 3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A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6점) B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6점)	12점
3-(2)	A국의 물가상승률 산출 (2점) B국의 물가상승률 산출 (2점) 물가상승률을 이용한 두 국가의 구매력 비교 (4점)	8점
3-(3)	두 국가의 예상 물가상승률 계산 (4점) 두 국가의 실질 이자율 계산 (4점) 실질 이자율 비교를 통한 투자 결정 (2점)	10점

문항 3 - 예시 답안

■ 문항 3-(1)

-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 A국: $[0.6 \times (102/100) + 0.4 \times (1030/1000)] \times 100 = 102.4$
 - B국: $[0.4 \times (130/100) + 0.6 \times (1200/1000)] \times 100 = 124$

■ 문항 3-(2)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A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100에서 102.4로 증가하여 물가상승률은 2.4%가 됨.
 - B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100에서 124로 증가하여 물가상승률은 24%가 됨.

- 2021년 구매력 변화 비교
 - A국: 2020년에 100로 구입할 수 있었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상품(바구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는 102.4가 필요하다. 즉, 전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사기 위해서는 2021년에 2.4%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는 A국 화폐의 구매력이 2.4%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 B국: 2020년에 100로 구입할 수 있었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상품(바구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는 124가 필요하다. 즉, 전년과 동일한 재화 묶음을 사기 위해서는 2021년에 24%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는 B국 화폐의 구매력이 24%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구매력의 측면에서 2021년의 B국 화폐(β)의 구매력은 전년에 비하여 24% 줄어들어 2.4%가 줄어든 A국 화폐(α)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B국의 화폐 가치가 A국에 비하여 훨씬 크게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 문항 3-(3)

- A국의 2022년 예상 물가 상승률 = $0.5 \times 2.4\% + 0.5 \times 2.6\% = 2.5\%$.
- B국의 2022년 예상 물가 상승률 = $0.5 \times 24\% + 0.5 \times 25\% = 24.5\%$.
- A국에서 기대되는 실질 이자율 = $5\% - 2.5\% = 2.5\%$.
- B국에서 기대되는 실질 이자율 = $26\% - 24.5\% = 1.5\%$.
- 따라서, A국에 예금할 때 기대되는 실질 이자율은 2.5%로 B국에 예금할 때 기대되는 실질 이자율 1.5%보다 1.0%p 더 높다. 따라서 예금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 예상 실질 이자율이 더 높은 A국에 명목 이자율 5%로 예금한다.